

ACT1

THE GLITTER PATH

아트스페이스 호화 개관전

2022. 3.30 - 5.8

ANISH KAPOOR + ANTHONY CARO + CHAE SUNGPIL
CHUN KWANGYOUNG + FERNANDO BOTERO
GEORGE CONDO + GWON OSANG + JOUNG YOUNGJU
JE YEORAN + KIM BOHIE + KIM TSCHANGYEUL + LEE KANGSO
LEE UFAN + MARC CHAGALL + NICOLAS PARTY + YAYOI KUSAMA

ART
SPACE
HOHWA



ART SPACE HOHWA

+82 2 6337 7300 INFO@ASHH.KR ARTSPACEHOHWA.COM
(04520) KOREA PRESS CENTER, 124,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HE GLITTER PATH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2022년 3월 30일

서울 광화문에 새로운 복합 예술 공간 개관을 기념하며,

전시 《ACT.1 THE GLITTER PATH》를 개최한다.

본 전시는 아트스페이스 호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전시로서,

호반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의 작가들의 역사적 작품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동시대 현대미술의 세계를 탐닉한다.

《ACT.1 THE GLITTER PATH》에서는 김창열, 이우환, 이강소, 전광영, 김보희 등 국내 작가 포함,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안소니 카로(ANTHONY CARO), 아요이 쿠사마(YAYOI KUSAMA),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조지 콘도(GEORGE CONDO) 등의 해외 작가의 작품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이후 반인상주의,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 신표현주의, 단색화, 사진조각 등 현대미술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작품들을 함께 보여준다.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낭만적으로 표현한 마르크 샤갈의 <LES FIANCÉS AUX ANÉMONES>, 편집중적 강박을 수많은 도트(DOT)와 네트(NET)를 수행적으로 반복하여 무한히 그려낸 아요이 쿠사마의 <INFINITY-NETS (COSK)>, 거대한 오목거울 스틸 조각에 비춰진 뒤집어진 세계를 통해 우주의 이원론적 양극성을 탐구한 아니쉬 카푸어의 <MIRROR> 등 해외 아티스트들의 명작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내 작가들의 마스터 피스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일체의 구상성을 배제한 순수한 단색의 추상이 돋보이는 이우환의 <DIALOGUE>, 회화의 본질을 탐구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의 <물방울 A16>, 동양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현실 너머의 이상적 자연을 여백의 미를 통해 강조한 이강소의 <청명 SERENITY - 17087>, 사진과 조각을 결합한 실험적인 매체융합을 통해 조각의 존재론을 탐구한 권오상의 <PROJET D'ARCHITECTURE> 등이 대표적이다.

ART SPACE HOHWA

2022년 3월 서울 광화문에 문을 연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유명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전시 개최를 통해 선보이고자 한다. 세계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 중견 작가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국내 미술애호가들에게 예술작품 향유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역량 있는 신진 작가의 발굴과 지속적인 전시 후원을 통해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긴밀히 소통하는 전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ART SPACE
H OHWA

전시명 'GLITTER PATH'는 햇빛이 물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의 길을 일컫는다.
특히 해가 막 떠올라 수면과 가까워진 여명의 순간에 그 길은 더욱 찬란하고 선명해진다.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눈부신 아침햇살과 고요한 수면이 만나 만들어진 'GLITTER PATH'처럼,
본 전시를 통해 그 야심 찬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

동서와 매체를 넘나드는 유수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한데 선보이는 본 전시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고 있는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미적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해줄 것이다.
산발적으로 부서진 빛의 조각들이 군집하여 황홀하게 빛나는 궤도를 선사하듯,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 《ACT.1 THE GLITTER PATH》가
예술과 대중,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공명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

ANISH KAPOOR



01. MIRROR (COBALT BLUE TO TANGERINE)

2016, STAINLESS STEEL AND LACQUER, 185×185×2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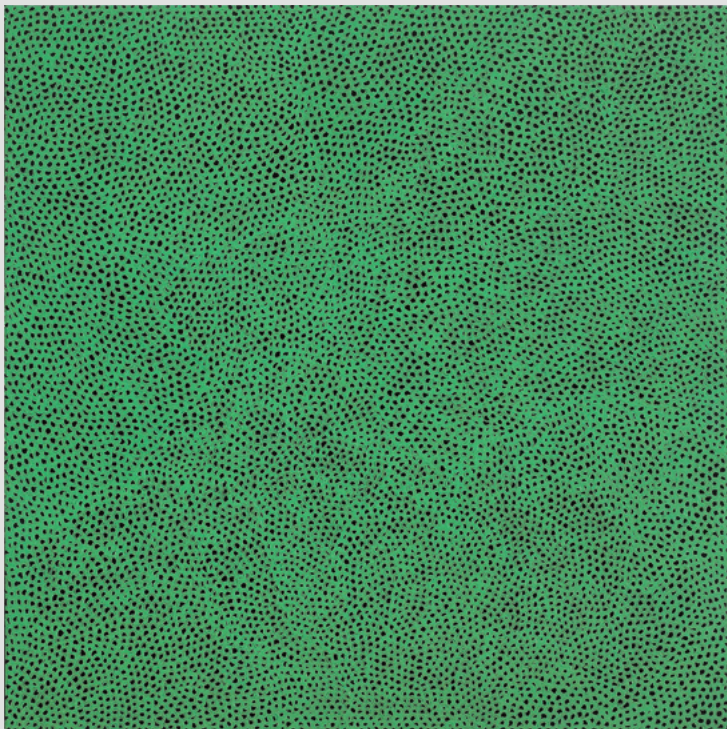


MARC CHAGALL

02. LES FIANCÉS AUX ANÉMONES

1979 , OIL AND TEMPERA ON CANVAS, 91.4×64.3CM

YAYOI KUSAMA



03. INFINITY-NETS (COSK)

2016 , ACRYLIC ON CANVAS, 145×145CM

GEORGE CONDO



04. THE HOMELESS HOBO

2009, OIL ON CANVAS, 216×190.6CM

NICOLAS PARTY



05. LANDSCAPE

2014, PASTEL ON CANVAS, 130×160 ICM

KIM TSCHANGYEUL



06. 물방울 A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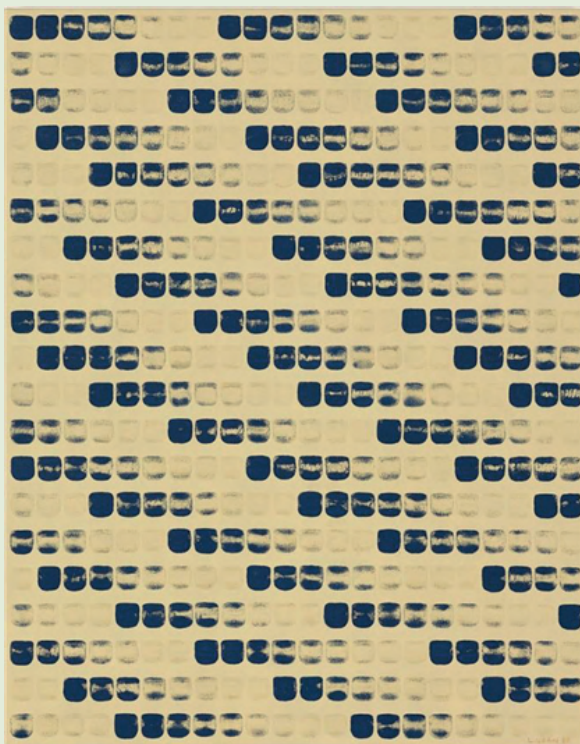
1976, OIL ON HEMP LINEN, 80×80CM

LEE
UFAN



07. DIALOGUE

2008, PIGMENT ON CANVAS, 227×182 CM



08. FROM POINT (NO.800109)

1980, PIGMENT ON CANVAS, 91×73CM,

LEE
KANGSO



09. 청명 SERENITY - 17104

2017, ACRYLIC ON CANVAS, 130.3×162CM

CHUN KWANGYOUNG



10. AGGREGATION 18 SE053

2018,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181×152CM

FERNANDO BOTERO



11. NUDE

1988, OIL ON CANVAS, 100.3×74.3CM

FERNANDO BOTERO



12. UCELLINO

2012, BRONZE, 40×25×41CM, ED.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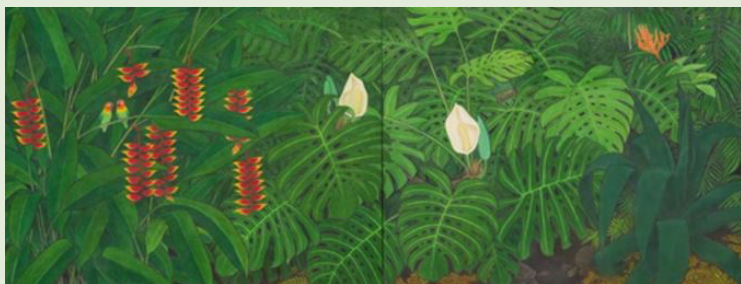
ANTHONY CARO



13. RETURN

1981, BRONZE, 94×45.5×167.5CM

KIM BOHIE



14. TOWARDS 1-2

2020, COLOR ON FABRIC, 130.3×324CM

JE
YEORAN



15. USQUAM NUSQUAM

2019, OIL ON CANVAS, 200×200CM

JOUNG YOUNGJU



16. BLUE NIGHT 428

2019, PAPER ON CANVAS, ACRYLIC, 112×145.5CM



17. PROJET D'ARCHITECTURE

2014-2018, C-PRINT, MIXED MEDIA, 46×46×107CM

CHAE
SUNGPIIL



18. HISTOIRE DE BLEU

2020, PIGMENT NATUREL SUR TOILE, 162×130CM

ACT 1

THE GLITTER PATH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L EXHIBITION
ACT 1. THE GLITTER PATH.
EXPLORING ART SPACE HOHWA.
30 MARCH — 8 MAY 2022

주최

호반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호화

협찬

서울신문

디자인

NNGC

ACT 1

THE GLITTER PATH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2022년 3월 30일

서울 광화문에 새로운 복합 예술 공간 개관을 기념하며,

전시 《ACT.1 THE GLITTER PATH》를 개최한다.

본 전시는 아트스페이스 호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전시로서,

호반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대가들의 역사적 작품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동시대 현대미술의 세계를 탐닉한다.

《ACT.1 THE GLITTER PATH》에서는 김창열, 이우환, 이강소, 전광영, 김보희 등
국내 작가 포함,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안소니 카로(ANTHONY CARO),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조지 콘도(GEORGE CONDO) 등의
해외 작가의 작품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이후 반인상주의,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
신형상주의, 단색화, 사진조각 등 현대미술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작품들을 함께 보여준다.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낭만적으로 표현한
마르크 샤갈의 <LES FIANCÉS AUX ANÉMONES>,
편집증적 강박을 수많은 도트(DOT)와 네트(NET)를 수행적으로 반복하여
무한히 그려낸 야요이 쿠사마의 <INFINITY-NETS (COSI)>,
거대한 오목거울 스틸 조각에 비춰진 뒤집어진 세계를 통해
우주의 이원론적 양극성을 탐구한 아니쉬 카푸어의 <MIRROR> 등
해외 아티스트들의 명작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내 작가들의 마스터 피스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일체의 구상성을 배제한 순수한 단색의 추상이 돋보이는 이우환의 <DIALOGUE>,
회화의 본질을 탐구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의 <물방울 A18>,
동양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현실 너머의 이상적 자연을
여백의 미를 통해 강조한 이강소의 <청명 SERENITY - T7087>,
사진과 조각을 결합한 실험적인 매체융합을 통해 조각의 존재론을 탐구한
권오상의 <PROJET D'ARCHITECTURE> 등이 대표적이다.

ART SPACE HOHWA

2022년 3월 서울 광화문에 문을 연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유명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전시 개최를 통해 선보이고자 한다.
세계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 중견 작가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국내 미술애호가들에게 예술작품 향유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역량 있는 신진 작가의 발굴과 지속적인 전시 후원을 통해
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긴밀히 소통하는 전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ART SPACE
H OHWA

